식품업계 '맛있는 도전'… 간편식 키우고 신기술 찾고

CJ제일제당 낙농가에 ICT 적용

오리온 간편식·건기식 투자확대

한국야쿠르트 HMR 시장 진출

하림그룹 종합식품물류단지 조성

매일유업 농어촌 테마파크 운영

삼양식품 교육서비스업 리뉴얼

국순당 화장품 사업 진출 초읽기

27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제4산업단지에서 개최된 '하림푸드 콤플렉스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발파 스타트 기어를 밀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림그룹

상하농원. /상하농원

CJ제일제당 생물자원 ICT사업 현장. /CJ제일제당

식품업계가 새 먹거리 찾기에 여념이 없다. 기존의 사업구조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기업들이 가정간편식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커피 등 음료제품, 화장품, 신기술과의 접목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고 있다.

제과기업 오리온은 간편식, 건기식, 기능성음료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간편식은 출시가 임박했다. 경남 밀양시에 건립 중인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올해 상반기에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제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그레놀라, 그래놀라 바 등이다.

건기식은 미국 '로빈슨파마'의 프리미엄 브랜드 'US 닥터스 클리니컬'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했다. 또한 기능성음료 시장 진출을 위해 2016년 말 '제주용암수'를 인수했으며 국내를 넘어, 중국 기능성 음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하림그룹도 종합식품단지인 '하림푸드 콤플렉스' 조성을 통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섰다. 하림은 '하림푸드 콤플렉스'를 건립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곳에는 식품 가공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 복합시설을 갖추게되며 오는 2019년말 완공, 가동에 들어간다. 간편식과 천연 베이스 소스 및 천연조미료, 즉석밥 등을 생산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야쿠르트 아줌마'를 앞세워 HMR 시장에 진출했다. 국·탕, 김치, 반찬 등을 야쿠르트 아줌마가 직접 전달해주는 것으로 1개만 주문해도 배달된다. 농심은 쿡탐, 동원홈푸드는 더반찬을 인수하고 간편식 시장에 진출했다. 빙그레도 '헬로 빙그레'를 선보였다.

식품 이외 다른 사업군으로 확장하는 곳도 있다.

매일유업은 전북 고창에서 농어촌테마파크 상하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하농원은 농장체험과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도 판매한다. 매일유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76억원을 투자했다. 오는 4월 40실 규모의 호텔을 오픈할 예정이다. 호텔에는 컨벤션 시설과 커피전문점 폴바셋 등도 입점할 예정이다. 매일유업은 호텔 오픈으로 가족 단위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사업목적에 '교육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삼양식품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연수원의 식당, 카페, 편의점, 목장체험 숲길 등을 리모델링을 했으며, 향후 교육기관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까지 자원봉사자 숙소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전통주 기업인 국순당은 화장품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영위 가능한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순당은 전통주 양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박 추출물을 활용해 발효화장품을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업으로 확장 하기도 한다.CJ제일제당은 ICT통합 플랫폼 전문기업 '리얼팜'과 함께 낙농가의 건강한 젖소 사육을 돕는 사업을 진행한다. CJ제일제당은 리얼팜에서 개발한 기기인 '카우톡(smaXtecTM)'을 활용해 젖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ICT 사업을 시작했다. '카우톡'은 젖소의 위(胃) 속에 삽입돼 체온과 산도(pH)를 측정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기기다. 젖소의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질병의 조짐을 미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 건강상태 확인 외에도 번식기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사전파악할 수 있어 개체 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낙농가에서 젖소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어 소득이 증가하고, 젖소 사육 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낙농 사료의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불안, 저출산 등으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 먹거리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식품업계의 사업영역은 갈수록 넓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공유경제 시대'… 中은 쑥쑥 크고, 규제 발목잡힌 韓 제자리

2025년 3350억달러로 성장 전망

에어비앤비·우버, 한국서만 불법

"'네거티브 규제' 등 해결책 절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의 모습. /구서윤 기자 yuni2514@

소유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시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란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소비 행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등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로 꼽힌다. 가장 큰 운송업체지만 단 한 대의 차도 소유하지 않은 '우버'와 세계 최대의 숙박 서비스 업체지만 단 한 채의 호텔도 소유하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떠올려보면 공유경제의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다.

현재 공유경제는 집, 자동차, 장난감 등의 재화를 넘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서울 곳곳을 걷다 보면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쉽게 눈에 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빌려 탈 수 있다.

3일 시청역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하던 조원영(28)씨는 "막상 자전거를 사두면 잘 안 타게 될 것 같다. 굳이 소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 설립된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는 지난달 차량 450대를 증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쏘카는 간단한 예약을 통해 필요한 시간에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 한대를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쓰니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확산은 분명한 시대적 흐름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전 세계 공유경제의 시장 규모는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33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시장의 13개 데카콘에도 공유경제 분야의 기업이 대거 자리 잡고 있다. 데카콘은 기업 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인 초거대 스타트업을 말한다.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와 디디추싱,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사무실공유업체인 위워크 등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반의 업체들이다.

특히 이웃나라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다. 중국의 공유경제는 매년 40%씩 성장하고 있다. 코트라는 중국의 공유경제 산업이 2020년까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할 것이며, 2025년까지 약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의 공유경제 기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정부 규제와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일례로 작년 8월 카풀 서비스업체 티티카카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을 태울 수 있다는 규제에 막혀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다. 심야 시간에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미니 버스에 태워주는 콜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방향을 돌렸다.

세계적 기업인 에어비앤비와 우버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작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유경제 스타트업의 규제 제도혁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공유경제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가 진출하는 관련산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유모(24)씨는 "내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고 싶지 않다. 아직은 타인에게 빌린 물품을 내 것처럼 소중히 써야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흐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무조건 막기보다는 활발한 논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절실해 보인다.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대호 교수는 "공유경제 관련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규제들이 달라붙어 있어 창업자가 그걸 풀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일단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서윤 기자

분양시장 한파 여전… 개인집단대출 1년 만에 최대폭 감소

주택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도금 대출 등 개인집단대출 잔액이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2월 말 개인집단대출 잔액은 116조9273억원으로 집계돼 전월과 비교해 2140억원 줄어 들었다. 지난해 2월 5691억원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개인집단대출 잔액 증가규모는 지난해 10월 월 1조3790억원을 기록한 뒤 11월(9901억원)과 12월(9549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내려갔다.

개인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빌려주는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을 뜻한다.

연이은 정부 규제로 분양시장 매력이 떨어지며 개인집단대출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8월 이후로 분양공고를 낸 아파트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40%로 묶였다. 다주택자는 대출 가능액이 이보다도 더 적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서 예전과 동일한 세대 수를 분양해도 집단대출 총액은 적어진다. 이런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분양가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댈 수 있어야 한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또 겨울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계절적 비수기로 분류된다. 여기에다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추징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대규모 이주비 대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은 오히려 늘었다. 5개 시중은행의 2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303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493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조원 이상 증가하다가 올해 1월 들어 증가 폭이 9565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 들었다.

지난달 다시 전월 대비 증가액이 1조5000억원대로 회복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